

아버지와 나 시리즈 1

- 하나님 좋으신 나의 아버지

<차례>

Chapter 1 : 하나님 아버지는 무지무지 좋으신 분입니다.

Chapter 2 : 아버지의 속마음을 아십니까?

Chapter 3 :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 이십니다.

Chapter 4 : 인생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 '아버지와 나' 시리즈를 발간하며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들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비밀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12가지 주제로 묶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 좋으신 나의 아버지

성령님 - 살리시는 영

예수님 - 구원의 이름

사탄의 영적전쟁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기도 - 우리의 살 길

교회 - 세상의 소망

리더십 -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예배 - 설레이는 만남

선교 - 존재이유

사역 - 인생의 행복

성경 - 내 길의 빛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는 나의 동역자요, 동지요, 친구입니다.

나의 꿈, 그대 젊은이를 사랑합니다.

- 그대들의 영원한 친구 준석이가 뜨거운 가슴을 품고 쓰다.

하나님 - 좋으신 나의 아버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시 18:31)

하나님은 그대의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몇 날 밤을 세워 이야기꽃을 피워도 그분에 대하여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기고 싶은 분, 그분 곁에만 있으면 안심이 되는 분, 정말 정말, 진짜 진짜 좋으신 분! 그런 분이 그대의 아버지라구요. 행복하시죠?

▣ 다음 글을 함께 읽읍시다.

아버지와 따스한 도시락

점심시간이면 나의 아버지가 늘 그곳에 와 계셨다. 자전거 뒤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싣고...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점심도시락을 가져다 주셨다. 그 때는 창피하기도 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들이 도시락을 싸오는데, 나의 아버지는 왜 굳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가져다주시는 것일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나이 서른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따스한 밥'을 먹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갖다 대어도. 그 어떤 교육학적 방법을 갖다 대어도. 그 어떤 논리를 갖다 대어도. 아들에게 '찬 밥'이 아닌 '따스한 밥'을 먹이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빛바래게 할 수는 없다. 자전거 뒤에 실려 있던 그 '따스한 밥'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따스한 마음'이었다. 이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바람빠진 풍선오뚜기

새벽녘 일찍 잠이 깨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세수를 한 후,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불그스럼한 둥근 무엇이 눈에 들어왔다. 풍선오뚜기였다. 어제 저녁 심혈을 기울여 만든 둘째 아들 녀석의 숙제물이었다. 풍선 속에 동전을 집어넣고 잔뜩 불어, 그 곁에 신문지를 잔뜩 붙였다. 그리고는 그 위에 붉은색의 한지를 겹으로 붙였다. 거기까지만 하면, 학교에 가서 그 위에 눈을 붙이고, 코를 붙이고, 입을 붙이고, 모자를 씌우면 예쁜 오뚜기가 되는 것이다. 학교 가서 완성작업을 하기 전에, 집에서 한지를 붙이는 데까지 해 가는 것이 숙제였다. 나는 첫째 아들녀석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 어제 저녁 멋지게 만들어서 자신있게 현관 앞 신발장 앞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이 빠져 있었다. 꾸물꾸물해져 있었다. 급하게 나가려던 순간 발걸음이 멈추었다. '실망스런 아들의 얼굴'이 눈에 떠올랐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람빠진 풍선오뚜기의 모습을 보면 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옷을 벗고 앉았다. 그리고 풍선을 다시 풀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두 번이나 웅쳐 대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았다. 기도하면서 컴컴한 거실에 주저앉아 풀기 시작해 30여 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풀었다. 할렐루야! 바람을 불었고, 약간씩 뜯어진 한지를 붙여서

다시 그 자리에 올려놓고 집을 나왔다. 단 한 가지 이유였다. ‘아들이 실망할까봐!’ 그럴까 봐 그 녀석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나는 그렇게 하였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그렇게 인도하였다.’ ‘네가 실망할까봐 네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인가를 그렇게 하였다.’

함께 나눔시다

-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새롭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 하나님 아버지는 그대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나요?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 Chapter 1 - 하나님 아버지는 무지무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다가갈수록 ‘실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가갈수록 ‘만족’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1. 아버지는 그대를 아시고,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눈을 뜨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로 그대 곁에 계십니다.

♣ 말씀읽기

시편 139편 1-10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정도로 그대를 아시고 계십니까? (1-4절)

☞ 참고

‘아신다’ (know)

이 말이 반복됩니다.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시며’, ‘통촉하시오며’, ‘익히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만큼 신경 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사람

의 형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의 형편을 모를 때가 없습니다. ‘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마 10:29-31)

나눔시다

- 나의 이 형편은 하나님이 ‘모르실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 지금 나의 이 형편은 ‘아버지 하나님이 좀 빨리 알아주었으면!’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놓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묵상하기 2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정도로 그대와 함께 계십니까? (7-10절)

☞ 참고

‘거기서도’ (there)

이 말이 반복됩니다.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니이다.’ ‘거기서도’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 일까요? 그대가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는 늘 그대 곁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서 있는 삶의 현장! 하나님 아버지는 늘 ‘거기에’ 계십니다. 조건에 관계없이 그대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늘’ ‘거기에’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나눔시다

- 그대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 막혀버린 진로? 깨어진 관계? 직장? 연약해진 몸?

2. 아버지는 ‘그대를 그저 좋아하시는 분!’ 이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들어서 그대를 보고 말합니다.

‘나는 네가 싫어’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대를 보고 말합니다.

‘나는 네가 좋아!’

어떤 이유?

‘네가 내 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지’

♣ 말씀읽기 2

스바냐 3장 14-20절을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4-16절) 명령형으로 된 다섯 개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나눔시다

◦ 현재의 그대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다섯가지 말씀 중에서 지금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묵상하기 2

하나님을 그대를 바라보시고 만나실 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17절)

나눔시다

-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좋아하신다고 하면 그대 마음이 어떠세요? 미안하세요? 속스러우세요? 기분 좋으세요? 그저 담담하세요? 아니면?
- 요즈음 그대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 묵상하기 3

하나님은 그대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8-20절)

☞ Chapter 2 - 아버지의 속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그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느낌은 '따스함'입니다. '열정'입니다.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좋다.' '네가 나만 믿었으면 좋겠다.'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싶다.'

♣ 말씀읽기 1

예레미야 29장 1-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아버지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4-9절)

☞ 참고

이 말씀은 언제, 누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가?

이 말씀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어 가는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앗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B.C 597년서부터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B.C 587년에 망합니다. 이 때 4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합니다.

나눔시다

◦ 그대는 혹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낙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 묵상하기 2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13절)

시

아버지의 마음 : '애야, 이렇게 살아가거라.'

- 라 준 석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겠니?
너는 이렇게 살아가거라.

너 오늘 표정이 왜 그래?
웬지 모르게 우울해 보이는구나.
한 번 웃어보렴. 미소지어 보렴.
그럼. 그렇게. 얼마나 좋아.
늘 그렇게 기쁜 표정으로 살아가거라.

애야, 네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열심히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때 낙심하지 말거라. 왜냐구?
너 보기에 완전한 실패같은 일도,
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지.
지금 내 곁에 있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잖니.

홀로 지고 가기에 버거운 인생의 짐.
그 짐 너 홀로 지고 가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라.
기도하면서 살라는 말이다. 왜냐구?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너의 기도 소리가 듣고 싶구나.

오늘도 이런 말, 저런 말, 참으로 많은 말을 하였지?
그 말들 중에서 나를 높이는 말은 얼마나 많았는지?
찬양하면서 살라는 말이다.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참으로 멋져! 그 말을 듣고 싶구나.
아름다운 멜로디에 실어서 노래하면 더욱 좋겠지.
온 맘을 다하여 노래하면 더욱 좋겠지.

애야, 분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네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가 지려고 할 때,
용서하며 살아가거라. 나도 너를 용서했잖니.
너 알고 있니? 너는 엄청난 죄인이었어.
말도 못하는 죄인이었다. 너 그거 알아야 돼. 잊을 것을 잊어야지.

용서하는 마음! 푸근한 마음! 따스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거라.

에이! 아휴! 왜?
불평과 한숨과 의문이 툭툭 터져 나올 때,
그 때 감사하면서 살아가거라.
있잖니, 나는 네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의 머리터럭 개수까지 알고 있단다.
네게 일어나는 좋지 않게 보이는 일도 다 뜻이 있어 그러는 거야.
지나고 보면 알거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늘 엉뚱하게 살고,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야.
나는 네 장래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실망치 말고, 불평치 말고, 곳곳하게 살아가거라.
꼭 그렇게 살아가렴! 꼭! 꼭!
그래! 넌 할 수 있어! 나는 널 믿어!

☞ 참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아버지는 때로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 넣으시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목표는 아닙니다. 그 고난 너머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광야 40년이 있었구요, 욥에게도 시련의 세월이 있었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 23:10) 예레미야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애 3:32-33)

나눔시다

-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 그대에게 닥쳐온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대는 어떻게 변해 있으리라고 기대하십니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진로의 문제에서...

♣ 말씀읽기 2

에스겔 18장 23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2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시죠. 인간을 향한 어떤 마음을 말씀하십니까?

☞ Chapter 3 -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무한정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 말씀읽기 1

시편 103편 1-14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2)

☞ 참고

'송축하라.'

'송축한다'는 것은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라? 예. 하나님을 칭찬하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 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고백만 살아 있다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눔시다

- 그대의 요즈음 모습은 어떠세요?
-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송축하고 계세요? 아니면 불평하고 계세요?
-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대의 삶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막혀버린 진로? 노력하고 노력해도 깨어져 버린 관계? 지킬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으나 날아가 버린 물질과 건강? 금방 응답되지 않는 기도제목? 아니면, 그 무엇?

☞ 묵상하기 2

3-5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8-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그대를 용서하십니까?

나눔시다

-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대를 용서하셨다면, 그대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 그대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묶어두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고 기도하세요.

♣ 말씀읽기 2

누가복음 15장 11-32절 말씀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해보십시오.

2.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3.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4.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해 주었습니까?

5. 아버지와 맏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아들! 그리고 그 옆에 ‘하루도 잊지 않고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그래서 ‘늘 서성대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혹여 잠든 새에 아들이 오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 빗장을 열어놓으신 아버지.’ ‘바람결 부시럭대는 소리에든 내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소스라치듯이 깨어나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눔시다

- 그대가 만일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집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 그대가 만일 집나갔다 돌아와서 용서받은 아들이라면, 다른 아들이 집나갔다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어떻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순원 기도 제목>

☞ Chapter 4 - 인생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나의 '태도'라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태도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철저히 무릎꿇는 것!

당신이 원하시면 YES!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싫다 하시면 NO!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말씀읽기 1

역대하 20장 1-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1-2절)

나눔시다

- 그대는 요즈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책이 안보이는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묵상하기 2

그 위기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3-13절)

나눔시다

- 그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한참을 생각한 후에 내리는 조처 말고, 즉각적으로 내리는 조처말이에요. 불평? 한숨? 두려움? 기도? 찬양?

☞ 묵상하기 3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 여호사밧과 왕과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15-17절)

나눔시다

- 나의 능력에 대하여 한계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경탄한 적이 있나요?
-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그대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대의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말씀읽기 2

사무엘상 2장 1-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2-10절)

📖 참고

‘한나의 노래’와 ‘이스라엘 역사이야기’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누가 썼습니까? 사무엘이 썼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책에, 사무엘은 자신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한나에 얽힌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 자녀가 없어 마음이 슬픈 여인 한나가 기도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자신 ‘사무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의 ‘역사관’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관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태를 달을 수 있고,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역시 역사의 태를 달을 수 있고,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